

공공도서관 전자책 구입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rchase of Public Library's e-book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jssong@library.kr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amyj@cau.ac.kr
Jae-Sul, Song, GyeongGi-Do Cyber Library
Yeong-Joon Nam, Prof. Dept of LIS, Chung Ang Univ.

전자책은 장서 및 예산 규모면에서 이미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잡았으나 도입 방식 및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규모를 살펴보고 국내외 전자책 구입 방식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도서관의 경우 상용전자책 구입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ASP 임대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높고, 도서관의 사명을 견지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도서관의 경우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카피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들이 기준이나 체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 3월 국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립남부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십수년 사이 전자책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장서 유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성대훈, 2001). 전자책은 공공도서관의 장서 규모 및 예산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전자책의 도입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이경표, 2012).

이러한 가운데 출판계에서는 현행 도서관의 전자책 구입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방식이 저작권법을 위배하고 있으며, 저작자와 출판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도입과 관련한 표준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기욱 등, 2013) 출판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

안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구입 방법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국외 주요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어떤 방식과 서비스 조건으로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우선 관련 문헌 및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국외 공공도서관 전자책 판매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련 보유 현황 및 예산 등 각종 통계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상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전자책 구입 현황은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구입시 계약조건을 명시한 공고문의 과업지시서(시방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총 30건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지난 1년간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구입 관련 모든 공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라장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와 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 따라 구입총액 및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가 국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수집한 과업지시서의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입예산, 구입 종수, 계약방식, 동시이용자수(COPY수), 전자책 소유권, 무상유지보수 기간, 저작권 위반 책임, 이용자 범위, 기타 특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구입 방식의 유형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2.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82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전자책을 서비스 하는 도서관은 521개로 전체 도서관 가운데 62.9%

이며, 이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은 모두 3,067,226권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공공도서관 소장 종이책의 78,126,501권의 3.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44억6천만원으로 도서(인쇄)구입비 537억7천만원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 수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8%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변하여 매년 2%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종이책 대비 전자책의 비율은 2010년까지 2.3% 이하 수준에서 미미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1년 4.1%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자책 구입 예산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0년 46억5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2009년은 32억3천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자책 서비스 도서관 및 전자책 장서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자책 서비스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서비스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이용자의 범위는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자책 구입 예산은 종이책 구입예산 대비 7~9%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전자책을 실제 구입하는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자

<표 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도서관수(개관) (전체대비비율) | 363 (56.0%) | 381 (54.2%) | 425 (56.0%) | 461 (58.7%) | 521 (62.9%) |
| 장서수(천권) (전자책대비율) | 1,171 (2.1%) | 1,431 (2.3%) | 1,550 (2.3%) | 2,954 (4.1%) | 3,067 (3.9%) |
| 예산(천만원) (종이책대비비율) | 387 (8.4%) | 323 (6.4%) | 465 (8.9%) | 390 (7.2%) | 446 (8.3%) |

책 구입 예산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국외 전자책 판매 구입 관련 정책

랜덤하우스, 하퍼 콜린스 등 주요 출판사를 포함한 5,000개 이상 출판사와 제휴하여 2백만건 이상의 타이틀을 보유한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인 오버드라이브(OverDrive)는 2003년부터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행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비롯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3만개 이상의 도서관, 학교, 대학에 서비스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90%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오버드라이브사의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다. ASP방식(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도서관에서 자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 하며 도서관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해 서비스 하되 전자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여 도서관별 분관형태의 전자책 사이트를 구축해 주는데 규모에 따라 일정 비용을 받는다. 동시 이용 접속자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수수료도 도서관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납품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하면 오버드라이브의 전자책 판매 방식을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도서관 판매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몬앤서스터(Simon & Schuster)같은 대형 출판사의 경우 사용자수의 제약없이 1년간 모든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도서관을 통해 판매된 책의 커미션 일부는 도서관에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랜덤하우스(Random House)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시도되어지고 있다

(한국전자출판진흥원, 2014).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전자책 출판·유통계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하퍼콜린스에서 전자책 대출 횟수를 26회로 제한한다는 발표에 대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 몇몇 주의 공공도서관에서 하퍼콜린스의 책을 구입하지 않기로 각을 세운바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절반수준의 출판사들이 전자책 판매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있고, 미국 도서관협회(ALA)에서는 아예 “도서관 전자책을 위한 저자들(Authors for Library Ebooks)”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지식과 저작물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나 구입에 제약을 받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불합리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을 발표하였다. 2012년 4월 발표된 “IFLA 도서관 전자자료 대출에 관한 원칙(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에는 공공영역에서 이용자들이 종이책을 습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6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첫째, 도서관은 제약 없이 모든 상업적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약 시장에서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 법률에 따라 합리적 조건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 조건과 정당한 가격하에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 법규안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해 표준 형태

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에서 보유한 전자책을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도 같은해 8월 발표한 “공공도서관을 위한 전자책 비즈니스 모델(Ebook Business Models for Public Libraries)”에서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하는데 3가지 핵심조건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전자책은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책은 다른 대출 플랫폼으로 이동 가능해야 하며 이용에 기한이 없어야 한다.

셋째, 출판사나 유통사는 도서관에 전자책의 메타데이터와 관리툴을 제공해야 한다.

이 상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 방식은 대출 플랫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ASP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다각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전자책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사명과 저작자와 출판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저작·출판계가 맞서는 가운데 도서관계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사명을 고수하기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국내 공공도서관 전자책 구입 방식 분석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간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등록된 공공도서관 전자책 입찰건수는 총 30건이다.

이들 입찰공고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시방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입예산, 구입종수, 계약방식, 동시이용자수(COPY수), 전자책 소유권, 무상유지보수 기간, 저작권 위반 책임, 이용자 범위, 기타 특이사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전자책 구입예산을 살펴보면 30건에 대한 구입예산은 총 10억2천5백만원이며, 모두 21,711종의 전자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입찰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모두 4,953종을 구입하였다. 최소 입찰금액은 200만원이었으며 최소 구입종수는 119종이었다. 계약 방식은 구입대상을 지정하고 입찰하는 수의 계약방식이 19건, 투찰 금액 가운데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총액최저 입찰방식이 11건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납품사의 역량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적 적용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동시이용자수(카피수)는 출판·유통계의 수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조사 대상기관의 평균 동시이용자수는 3.4카피로 나타났다. 3카피가 11개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카피도 7개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역내 22개관이 통합 이용하는 조건으로 10카피를 구입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카피를 구입한 곳도 3곳으로 전체 10%를 차지했다.

<표 2> 동시이용자수(카피수)

| 구분 | 1 | 2 | 3 | 5 | 10 | 없음 | 평균 |
|-----|-----|---|----|---|----|----|-----|
| 카피수 | 3.4 | 7 | 11 | 3 | 3 | 2 | 3.4 |

도서관에 납품한 전자책의 소유권을 도서관이라고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모두 17개관이나, 나머지 명시하지 않는 기관도 자체 도서관 서버에 납품하는 조건으

로 구입하는 방식이어서 오버드라이브와 같이 ASP 방식으로 전자책을 도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1년이 18개관으로 가장 많고 과업지시서에 명시 안된 6개관도 1년으로 본다면 가장 보편적인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의 경우 최대 수준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3> 무상유지보수 기간

| 구분 | 1 | 2 | 5 | 없음 | 계 |
|---------|----|---|---|----|-----|
| 무상 유지보수 | 18 | 4 | 2 | 6 | 1.5 |

납품된 전자책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22개관이 과업지시서에 책임소재를 납품업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8개관은 이에 관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전자책과 관련한 민감한 영역이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이용범위에 대한 규정은 의외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가 아예 안된 곳이 17개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명시한 곳에서도 관외대출 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4곳 뿐이며 나머지는 ‘홈페이지 회원’, ‘회원가입자’ 등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출판계에서 전자책 이용 허용 범위를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기준 마련을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0개 입찰관련 과업지시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구입 대상 목록을 선정하는 다음 수의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서울도서관의 경우 연간단가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은 입

찰전에 목록을 선정하지 않고 총액과 구입 대상 종수만을 정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연간 수시로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여 낙찰자로부터 전자책을 납품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입찰 방식이 과거 발간 자료를 소급하여 구입하는 것이라면 서울도서관의 사례는 향후 발간될 자료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신간 자료 수집 및 이용자의 비치희망 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낙찰자가 신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업체이거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울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보통 일반 종이책 구입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전자책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난 1년간 전자책 구입관련 입찰 공고문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입한 전자책의 소유권과 서비스 기한, 이용 가능한 회원의 범위 등 저작권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자칫 논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이용자수, 회원 범위 등 출판사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한 항목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 구입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여 그에 따른 효과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 장서와 예산 측면에서 전자책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를 살펴보고 외국의 전자책 구입 방식과 그 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관련 협회 차원의 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의 실제 전자책 구입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고문의 과업지시서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책 서비스 도서관수와 장서량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책은 장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외 도서관의 경우 상용전자책 구입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ASP 임대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높고, 친편일률적인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도서관의 사명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국내 도서관의 경우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카피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들이 기준이나 체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개선하고, 출판·유통계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향후 IFLA나 AL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이 전자책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인식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 독서문화 확산과 출판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전자책 구입 방식 다변화를 통해 지역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전자책 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Retrieved from <http://www.libsta.go.kr/>

김기옥 등저 (2013). 한국 전자출판을 말한다.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나라장터. Retrieved from <http://www.g2b.go.kr/>

성대훈 (2001). 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 전공. 80.

이경표 (2012). 도서관, 출판사, 제작유통사의 상생협력방안, 전자출판의 진화, 도서관의 미래를 전망하다, 14.

이이뉴스 24 (2014. 4. 16) 도서관끼리 전자책 공유 출판계 논란. Retrieved from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16431&g_menu=023120

장기영 (2013). 책의 미래. 서울: 그린아시아.

주간조선 (2011.4.18.). '하퍼콜린스' 나가! 전자책에 밀린 美 공공 도서관 생존 몸부림. Retrieved from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152100007>

중앙일보 (2013.1 .30) 공립 도서관 전자책 구입문제에 골머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46948

한국전자출판진흥원(2014).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관련 2차 협의 자료, 4-5.

ALA (2012). Ebook Business Models for Public Libraries. Retrieved from <http://connect.ala.org/files/80755/EbookBusinessModelsPublicLibs.pdf>

IFLA (2012). IFLA Releases Background Paper on e-Lending. Retrieved fr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46948

OverDrive. Retrieved from

<http://company.overdrive.com/company/who-we-are/>